국 어

문 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구지가」－

① 요구－위협－환기－조건
② 환기－요구－조건－위협
③ 위협－조건－환기－요구
④ 조건－요구－위협－환기

정답 ②

해설 거북아 거북아: 호칭, 환기
머리를 내어라: 부탁, 요구
만약 내어 놓지 않으면: 가정, 조건
구워서 먹으리라: 위협, 협박
참고] 구지가(龜旨歌):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함
성격: 집단 서사시, 노동요, 주술요

문 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삽을 씻는다.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③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정답 ④

해설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구절에서 화자의 애상적 삶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단순히 서경 묘사가 아닌 도시 노동자의 삶의 비애를 노래하는 시이다.

문 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정답 ②

해설 '낭중지추(囊中之錐)'란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기려 해도 그 재주가 저절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의미이다. 제시문의 '모수'는 스스로 뛰어난 인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오월동주(吳越同舟)
마이동풍(馬耳東風)
근묵자흑(近墨者黑)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①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②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③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④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정답 ③

해설 영달이의 눈시울이 화끈해진 이유는 쇠약해진 백화를 업고 느낀 연민 때문이다. 대전의 옥자와 동일한 연민을 느낄 뿐이지, 생각이 깊지 않은 아이다움에 느끼는 감정은 아니다.

문 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의 뜻이다. 보기의 ③과 동일한 의미이다. '시계', '자동차' 같은 물건을 수리하다의 의미이다.
오답 ①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②, ④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문 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정답 ①
해설 '시망스럽다'는 순 우리말로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의 뜻으로 사용하는 형용사이다. 예를 들어 '그는 말을 시망스럽게 해 다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한다.'의 형태로 쓰일 수 있다.

문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① **강**염기 ② **강**타자
③ **강**기침 ④ **강**행군

정답 ③
해설 접두사 '강'의 의미 구분을 묻는다. '강기침'은 '마른기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즉 '강-'은 '마른', '물기가 없는'의 뜻으로 쓰인 고유어 접두사이다. 나머지 '강-'은 한자어 '强-'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다. '강염기(强鹽基)', '강타자(强打者)', '강행군(强行軍)'의 한자어이다.

문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갈다)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불다)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이르다)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들르다)

정답 ②
해설 '국수가 불은'의 기본형은 '붇다'이다. '붇다'는 'ㄷ' 불규칙 활용어로서 모음어미를 만나면 'ㄹ'로 바뀐다. 즉, '붇다, 붇고, 붇지, 불어, 불으면, 불어서' 등으로 활용한다.

문 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매양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 애라고 조금 주세요?
>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 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 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 고기로 달래요.
>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 내었다.
>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①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정답 ③
해설 공간적 배경은 '중국인 거리' 또는 '푸줏간'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작품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과 기능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시간적 배경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어떠한 역할도 짐작할 수 없다.

문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태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

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란 구절이 나온다. 이는 '언어 표현'만이 생각의 전달 수단이라고 여기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말 을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④의 내용과 다르다.

문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①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②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③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정답 ③

해설 이 시는 순진하고 연약한 나비가 겪는 시련과 좌절을 통해 현실의 냉혹함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바다'와 '나비'라는 대조적인 두 이미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대한 바다의 냉혹함과 조그맣고 연약한 나비의 순진함이, 바다를 드러내는 푸른색과 나비를 드러내는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나타나 있다. 결국 '나비'는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가 아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하고 연약한 존재의 표상이다.

문1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 있다.

㉠<u>개찰구</u>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u>금광 브로커에</u>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u>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u>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 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u>**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u>에서 볼 수 있었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①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②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③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④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정답 ②

해설 '금광 브로커'들은 '이 시대의 무직자'로, 금을 캐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조선인을 가리킨다. 예찬이 대상이 아니라 연민과 안타까움의 대상일 뿐이다.

문13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옹위하고 산중에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왈,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야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야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야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중략)…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①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② ㉡: '부인'이 꾼 꿈의 상황이다.
③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④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정답 ④

해설 '풍진'이란 나중에 일어날 난리 즉 전쟁을 의미하며, '너를 찾으리라'는 후에 '유충렬이 커다란 공을 세울 것을 예언하는 꿈의 내용이다.

문14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 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묘사**, ㉢**서사**,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①	說明	描寫	敍事	論證
②	設明	描寫	敍事	論症
③	說明	猫鯊	徐事	論症
④	說明	猫鯊	徐事	論證

정답 ①

해설 說明(말씀 설, 밝을 명)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
- 描寫(그릴 묘, 베낄 사)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 敍事(펼 서, 일 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 論證(논할 논, 증거 증)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

문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① 병이 씻은 듯이 **낳았다**.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④ 옷가지를 **이여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정답 ③

해설 '잠그다'에 모음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 '—'탈락이 이뤄진다. '잠가, 잠가서, 잠갔다'로 활용한다. '잠궈, 잠궈서, 잠궜다'를 잘못된 활용이다. '담그다' 역시 '담가, 담가서, 담갔다'로 활용하고 '치르다'는 '치러, 치러서, 치렀다'처럼 활용한다.

오답 ① 병이 호전되는 것은 '낫다'이고 'ㅅ'불규칙 활용어이므로 '나아라'가 맞다
② '넉넉하지'의 줄임말은 '넉넉지'이다. 예사소리 아래 '하'는 모두 탈락한다.
④ '잇다'의 활용형은 'ㅅ'불규칙 활용어로서 '이어서'이다. 단 발음은 [이어서/이여서] 둘 모두 가능하다.

문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① ㆆ ② ㅿ
③ ㅠ ④ ㅸ

정답 ④

해설 훈민정음의 자모 체계는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를 합친 28자모 체계이다. 'ㅸ'은 기본 자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서법(連書法)에 운용하는 문자이다.

자음 체계

조음점	조음방법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牙音(아음)	象舌根閉喉之形(상설근폐후지형)	ㄱ	ㅋ	ㆁ
舌音(설음)	象舌附上齶之形(상설부상악지형)	ㄴ	ㄷ, ㅌ	ㄹ
脣音(순음)	象口形(상구형)	ㅁ	ㅂ, ㅍ	
齒音(치음)	象齒形(상치형)	ㅅ	ㅈ, ㅊ	ㅿ
喉音(후음)	象喉形(상후형)	ㅇ	ㆆ, ㅎ	

QMG 박문각강남고시학원

모음 체계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天(천)	·	ㅏ, ㅗ	ㅑ, ㅛ
人(인)	ㅣ		
地(지)	ㅡ	ㅓ, ㅜ	ㅕ, ㅠ

문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정답 ①

해설 '중'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쓰기가 원칙이다. '연구 중', '수업 중', '꽃 중의 꽃'처럼 하지만 한 단어로 합성이 이루어진 단어는 예외적으로 붙여 쓴다. '한밤중', '은연중', '무의식중', '부지중', '오밤중' 등이 한 단어이다.

오답 ② '-ㄹ뿐더러'는 어간 뒤에 결합하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만'이 시간의 경과로 쓰이는 경우 의존 명사이므로 '두 시간 만에'처럼 띄어 쓴다.
④ '안되다'가 '일, 현상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를 뜻할 때는 한 단어의 동사이므로 붙여 쓴다.

문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정답 ①

해설 探險(찾을 탐, 험할 험), 矛盾(창 모, 방패 순), 貨幣(재물 화, 화폐 폐)

오답 ② 灼熱(불사를 작, 더울 열)
③ 荊棘(가시나무 형, 가시 극)
④ 惡寒(미워할 오, 찰 한)

문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ㄴ, ㅁ, ㅇ'은 유음이다.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③ 'ㅡ, ㅓ, ㅏ'는 후설 모음이다.
④ 'ㅟ, ㅚ, ㅗ, ㅜ'는 원순 모음이다.

정답 ①

해설 'ㄴ, ㅁ, ㅇ'은 자음의 분류 체계상 '비음'에 해당한다. '유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ㄹ'이다.

문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
(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가) – (다) – (나) – (라)
④ (가) – (라) – (나) – (다)

정답 ②

해설 (가)는 사물의 양면성을 언급하여 화제를 제시한다. (나)에서 사물의 양면성이 '혜시'의 방생의 설로 제시된다. 이어서 (라)에서 '혜시'의 설을 구체화한 내용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다)에서 변증법적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QMG 박문각강남고시학원